



THE VOICE

2017.4.20~7.1



Coreana Museum of Art



더 보이스 THE VOICE

서지은 _ 코리아나미술관 큐레이터

"보이는 것이 지닌 상대적 불변성, 견고성, 지속성과는 대조적으로
목소리는 언제나 변화하는 것이며, 무언가가 되어가는 것이고,
지나가며, 명확하지 않은 외곽을 지닌 것이다."

- 블라덴 돌라르 Mladen Dolar

시각예술영역으로 침투한 '목소리voice'를 다각도로 조명해 보는 전시 《더 보이스THE VOICE》는 코리아나미술관의 지속적인 관심 주제 중 하나인 '신체body'에 대한 심층적 탐구의 일환으로 기획되었다. 미술관은 2007년 신체의 '후각'을 주제로 한 기획전 《셸 위 스멜Shall We Smell》, 우리 몸에서 외부 자극을 수용하는 가장 거대한 감각기관인 '피부'를 전시로 풀어낸 2009년 《울트라 스킨Ultra Skin》, '예술가의 신체'라는 주제를 21세기 관점에서 해석하여 선보인 2010년 《예술가의 신체Artist's Body》, 머리카락이 지니는 사회·문화적 함의를 통해 머리카락의 변이적 속성에 주목했던 2011년 《쇼 미 유어 헤어Show Me Your Hair》 등을 선보이며 '신체'에 대한 진지한 미학적 탐구를 지속해 왔다. '몸'에 대한 접근은 몸이 지니는 '수행성performativity'에 주목하고 퍼포먼스에 담긴 다양한 문화적 의미작용들을 들여다 본 《퍼포밍 필름Performing Film》, 《코드 액트Code Act》 등의 최근 전시를 통해 더욱 확장되었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2017년 새롭게 선보이는 국제기획전 《더 보이스》는 현대 미술담론은 물론 사회·문화적 담론에서도 빠질 수 없는 주제인 '신체'에 대한 탐구를 지속하고자 하는 미술관과 전시기획자의 의지의 표출이기도 하다.

전시 주제 '목소리'에 대해 잠시 살펴보자. 인간의 신체에서 나는 소리 중 하나인 목소리는 허파에서 나온 공기가 성대를 통해 나오면서 진동을 만들고, 이 진동이 입을 통해 빠져나가면서 만드는 소리이다. 말하거나, 웃거나, 울거나 노래할 때 내는 소리들을 포함하는데, 이는 우리의 일상적 경험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목소리는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신호탄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또한, 흥미롭다.

한편, 인지과학 분야에서 목소리는 타자의 존재를 인식하게 하는 중요한 매개체다. 타자에 대한 시각적 인식 이전에 우리는 타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임을 통해 그 존재를 인식한다. 목소리와 신체의 관계를 더 들여다보면 라캉Jacques Lacan이 지적하듯, 목소리는 신체를 통해 나오지만, 신체에 속하지 않는다. 목소리는 신체와 일부를 공유할 뿐이다. 《더 보이스》전은 목소리와 신체의 접점으로부터 출발하여, 가시성이 추가 되는 시각예술 영역에서 비가시성을 수반하는 목소리는 어떻게 개입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지, 또한 어떻게 시각예술가들에 의해 주제로서 탐구되고 있는지 추적해 본다. 이를 통해,

그동안 소외되었던, 그러나 주목할 가치가 있는 주제가 자 시각예술에 있어 중요한 미적 장치로 활용되고 있는 '목소리'에 대한 미술사적, 미학적 재발견 작업의 과정으로서 이 전시를 위치시킨다.

목소리는 창조적 자극제다. 목소리, 그중에서도 '예술가 자신의 목소리'는 음악과 같은 타 영역에서 이미 오랫동안 그러했듯 시각예술 영역에서도 종종 예술적 표현의 도구로 사용되어 왔다. 20세기 초 총체적 예술운동을 이끌었던 다다이스트Dadaist들이 자주 행했던 음성시 sound poetry는 언어와 목소리의 관계를 해체시키고, 자신들의 육성을 통해 음성 그 자체에 주목하였다. 예술가들의 목소리가 작품 전반에 등장한 것은 60년대 형식주의 모더니즘을 비판하고 변화를 추구하고자 '삶과 예술의 조화'를 가치로 예술과 일상 사이의 융합을 꾀했던 플럭서스Fluxus 운동, 특히 해프닝, 퍼포먼스, 이벤트 등 다양한 형태로 매체들간의 상호결합을 일으켰던 행위 예술과 관계가 깊다. 일시성, 그리고 순간성을 수반하는 목소리는 퍼포먼스와도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 목소리는 사라지는 매개로서 지금 여기에서만 만날 수 있는 살아있는 경험이기 때문이다.

《더 보이즈》에서 김가람, 김은, 이세옥 등 국내 작가 3인과 주디스 배리Judith Barry, 존 케이지John Cage, 차학경Theresa Hak Kyung Cha, 제레미 델러Jeremy Deller, 미카일 카리키스Mikhail Karikis, 라그나 키아르탄슨Ragnar Kjartansson, 브루스 나우만Bruce Nauman, 재닌 올레슨Jeanine Oleson, 슬라브스와 타타스Slavs and Tatars 등 9명(팀)의 국외 작가들은 영상, 설치, 사진, 프린트, 사운드 등의 매체를 통해 '목소리'에 접근한다. 그들이 탐구하는 목소리는 다양하다.

때로는 작가 자신의 목소리가 작품 전반에 등장하는 방법으로, 단수 혹은 다수의 대리인(퍼포머)을 통해, 목소리와 언어의 관계를 통해, 또는 보여지는 것과 목소리의 이중적 플레이를 통해 각각이 견지하고 있는 관점이 드러난다.

브루스 나우만은 1960년대 중반부터 자신의 신체를 표현의 도구로 삼아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그것을 기록한 다양한 비디오 영상작업을 선보여왔다. 그 중 전시에 출품된 약 1시간 길이의 실험 영상 <립싱크Lip Sync>(1969)에서는 클로즈업이 된 한 남자(나우만 그 자신)의 입이 거꾸로 흑백 화면에 등장해, 조금 크게 속삭이는 목소리로 "lip sync"라는 구절을 반복적으로 내뱉는다. 여기서 나타나는 신체의 일부분, 즉 거꾸로 보여지는 입과 턱, 그리고 목은 화면을 가득 채우며 배경이나 등장인물에 대한 정보는 제거되고 익명의 신체로서 연속되는 물리적 행위를 강조한다. 점차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관객은 이 남자의 입모양과 사운드가 일치하지 않게 됨을 알아차린다.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의 불일치는 입의 움직임과 실제 소리 사이의 물리적 시차, 그리고 언어적 의미와의 간극을 고조시키며 미묘한 긴장감을 불러일으킨다.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11세에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하여 샌프란시스코에서 활동했던 차학경이 1975년 제작한 8분짜리 단채널 비디오 작품 <입에서 입으로 Mouth to Mouth>에서는 브루스 나우만의 비디오에서와 같이 한 여성의 입모양이 클로즈업되어 나타난다. 나우만의 작업과 실험적 영상으로서의 표면적 시각성은 유사해 보일 수 있지만, 두 작품이 '목소리'에 접근하는 방식은 상이하다. 차학경의 영상 도입부에서 10개의 한글 글 모음 중 두 글자가 빠진, 8개의 글자 (ㅏ, ㅑ, ㅓ, ㅕ, ㅗ, ㅛ, ㅜ)가 조금 뒤섞인 순서로 화면을 지나간다.

그리고 검게 덮인 화면은 아날로그 텔레비전의 정지 화면에서 볼 수 있는 검은 점들과 하얀 잡음들이 뒤섞여 마치 몸 안의 세포들처럼 끊임없이 꿈틀거리는 스노우snow로 전환되고, 그 시각적 노이즈들로부터 서서히 도입부에 등장했던 모음들을 발음하는 입 모양이 그 형태를 드러낸다. 하지만 관객은 그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 단지 들리지 않는 목소리, 그리고 그 제스처를 보려고 노력할 뿐이다. 의도적으로 제거된 그녀의 목소리를 대체하고 있는 사운드는 TV의 노이즈 같기도 하고, 물소리 같기도 하다. 이러한 소리와 이미지 사이의 상호불일치를 통해 차학경은 발화의 문제를 표출시키고 있다. “여성이 무언가를 말하려고 할 때 그녀는 지시받고 목소리는 침묵의 벽으로 사라지며 알 수 없는 단어들로 엉망이 된다.” 트린 티 민하Trinh T Minh-ha가 제 3세계 여성의 발화의 상황에 대해 언급한 이 문장은 차학경의 작품에서 제거된 목소리가 어떤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지를 암시해준다.

브루스 나우만과 차학경이 언어와 결부시킨 목소리의 특성에 주목했다면, 언어와 목소리의 관습적 관계에서 탈피하여 비언어적 목소리에 집중하게 하는 작업을 선보여 온 보이스 퍼포먼스 작가 미카일 카리키스의 2채널 비디오 〈Promise Me〉(2012)에서 퍼포머로 등장하는 작가는 언어가 배제된 목소리를 표출한다. 설치된 두 개의 모니터 중 왼쪽 화면에서는 말을 하고자 하지만 입이 열리지 않아 입을 열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 오른쪽 화면에서는 벌어진 입이 다물어 지지 않아 닫아보려고 애쓰는 모습이 그려진다. 입을 벌리려는, 혹은 입을 닫으려는 애절한 노력은 찌푸려지는 퍼포머의 얼굴 표정과 동시에 입으로부터 나오는 기계음과도 같은 기괴한 소리를 통해 관객에게 전달된다. 카리키스는 시각

예술을 기반으로 한 청각문화에 대한 관심, 특히 조각적 재료로서의 목소리, 사회·정치적 매개체agent로서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탐구하며, 퍼포먼스 및 영상, 사운드 등의 매체를 통해 불가능성impossibility, 불화와 탈구의 개념을 다뤄온 작가이다. 이번 전 시작에서 보여지는 두 개의 상반된 상황을 통해 작가는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의지와 목소리를 낼 수 없게 되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건네며, 정치적 맥락에서 발화의 권리 박탈을 은유적으로 함축하고 있다.

퍼포먼스, 설치, 영상, 조각, 사진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작품활동을 펼치고 있는 미국 출신의 미디어 아티스트 주디스 배리의 2채널 비디오 설치 작품인 〈Voice Off〉(1999)는 목소리를 어떻게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작가의 고민을 반영하고 있다. 반으로 나뉜 갤러리 공간 가운데에 설치된 벽, 그리고 그 벽의 양쪽 스크린을 통해 동시에 상영되고 있는 영상을 통해 관객은 두 개의 은유적 서사를 순차적으로 보게 된다. 관객이 처음 마주하게 되는 영상에서는 어떤 방을 배경으로 한 남자가 등장하는데, 그는 타자를 치다가 종종 일어나 담배를 피우거나 커피를 마시고, 신문을 읽는 등 일상적인 활동을 보여준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떤 소리들에 의해 방해로 받게 되고, 지속적으로 그를 사로잡는 그 소리의 근원을 찾기 위해 결국 골프 클럽을 들고 방의 벽을 뚫어버린다. 스크린의 일부로 자신의 존재를 감추고 있는 커튼을 지나 만나게 되는 또 다른 영상에서는 내적이고, 친밀하며 사적인 일련의 상황들이 몽환적 분위기 속에서 나타난다. 관객은 내적인 독백들, 조금 큰 소리로 진행되는 대화들, 노래를 부르는 목소리 등 일상생활 속에서 스쳐 지나가면서 들을 만한 다양한 소리들을 듣게 된다. 영상의 후반부에서 반대편 영상 속 남

자가 벽을 뚫고 건너오는 장면이 싱크되어 나타나는데, 남자가 등장하자 모든 상황은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리고 남자는 이내 자신이 소리에 흘렸음을 깨닫는다. 이를 통해 작가는 소유와 상실의 측면에서 목소리에 내재된 의미의 탐구를 보여주고, 영상이 투사되고 있는 이중 구조와 '컷트'이란 장치를 통해 관객에게 목소리의 공간적 경험을 선사한다.

1958년, 미국의 전위적 작곡가 존 케이지가 비정통적 퍼포먼스로 유명한 성악가 캐시 버버리안(Cathy Berberian)의 보이스 퍼포먼스를 위해 작곡한 〈Aria〉의 악보는 청각적 요소들이 어떻게 시각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작품이다. 이 악보에는 오선지가 없다. 악보라면 당연히 있어야 할 일반적인 음표나 어떤 음악적 부호도 없다. 선과 색, 점 등의 비정형적인 시각적 요소들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 퍼포먼스의 시간적 흐름은 수평적으로, 음의 고저는 선의 수직적 움직임을 통해 표현되어 있다. 악보를 수놓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검은색 선들과 함께 표시된 색들은 10가지의 가창 스타일을 제시하고, 페이지마다 무작위적으로 삽입되어 있는 듯한 16개의 검은색 사각형들은 목소리의 비음악적 사용, 또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퍼포머가 창작해 내야만 하는) 다른 어떤 소리 혹은 소음의 개입을 나타낸다. 5개 언어(아르메니아어, 러시아어,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영어)의 자음과 모음, 단어들로 구성된 가사가 각 선에 분포되어 있다. 이 악보에서 유일하게 절대성을 지닌 것은 바로 이 가사들뿐이다. 가사, 즉 언어적 기호를 제외한 모든 시각적 요소들은 태생적으로 비결정성을 지니며, 상대적일 수 밖에 없다. 〈Aria〉의 악보에서 기표와 기의가 해체된 불확정적 요소들은 어느 음에서 시작해서 어느 음으로 끝내야 할지, 어떤 길이로, 또 어떤 음색으로

음을 표현해야 할지, 검은 사각형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등 퍼포머로 하여금 적극적 읽기를 통한 목소리의 발현을 요구한다.

쓰기, 읽기, 듣기 행위에 관한 지속적 탐구와 함께 청각의 경험을 통한 시각예술의 영역 확장을 시도해 온 김온은 2017년 신작 〈기억과 기록 사이의 목소리 사용법〉을 통해 목소리가 가지고 있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층위를 바라보고, 이 층위의 통로라 할 수 있는 기억과 기록 사이에 목소리를 위치시킨다. 전시장 벽에 페인트된 3개의 검은 사각형 안에는 컷팅된 흰 종이들이, 그리고 흰 종이 안에는 인쇄된 활자들이, 그리고 그 위로는 검은색 테이프가 거칠게 횡단하고 있다. 검정 마이크와 함께 설치된 검은색 앰프에서는 프란츠 카프카(Franz Kafka)의 『꿈』에 쓰인 모든 동사를 포함한 마침표 앞의 단어들 을 작가의 목소리로 낭독한 사운드가 흘러나온다. 김온의 작업은 보통 '텍스트'로부터 시작된다. 이번 작업에서도 카프카가 쓴 편지나 일기, 소설 등의 글에서 꿈에 대한 부분만 발췌하여 모아놓은 책인 『꿈』이 사운드와 텍스트 설치의 근간이 되었다. 작가는 발췌한 6페이지의 텍스트를 크게 확대한 후 재출력하여, 그것을 분절된 형태로 재위치시킴으로써, 그리고 텍스트의 특정 부분(마침표 앞의 단어들)만을 건조하게 낭독하는 목소리를 통하여 텍스트 원본의 의미를 해체하고 재구성하여 또 다른 텍스트를 지향하고 있다. 보이지 않으며, 발현과 동시에 사라지는 '목소리'를 통해 관객은 새로운 텍스트를 만나고, 기억한다. 이 기록된 목소리를 듣는 행위는 기록된 텍스트를 읽는 행위, 즉 보는 행위를 대체한다. 시각과 청각의 전복을 일으키는 이러한 읽기의 시도는 라이브로 행해지는 리딩 퍼포먼스를 통해 기록된 목소리가 아닌 현존의 목소리로, 그리고 더욱 즉흥적인 방식으로 기억과 기록 사이의 목소리 쓰임새를 실험한다.

김온의 작업에서 목소리를 통해 기록된 텍스트가 새로운 텍스트로 환생했다면, 신화·문화사·정체성 등에 대한 통념을 작품으로 끌어들이는 작업을 해 온 아이슬란드 출신의 작가 라그나 키아르탄슨은 자신의 기억 속에 남겨진 텍스트 (앨런 긴즈버그Allen Ginsberg의 시 「Song」의 일부분)를 퍼포머 3인의 목소리를 통해 재생 시킴으로써 새로운 맥락을 만들어낸다. 원천이 된 시의 제목을 가져온 키아르탄슨의 전시작 〈Song〉(2011)에서 목소리는 신화적이다. 반복적 멜로디를 입힌 세 여인의 목소리는 최면술을 걸듯 공간에 울려 퍼지며, 아름답고 신비로운 노랫소리로 선원들을 유혹하여 바다로 뛰어들게 했다는 신화 속 주인공, 세이렌Siren을 떠올리게 한다. 이 작품은 미국 카네기 미술관의 조각 홀에서 진행된 6시간의 라이브 퍼포먼스를 촬영한 장시간의 러닝타임을 가진 영상작품이다. 퍼포먼스의 배경이 된 공간은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을 모델로 건축하여 흰색의 대리석 기둥들과 발코니, 그리고 발코니에 서있는 조각들로 인해 고대 그리스의 신전과 같은 분위기를 풍긴다. 그리고 그 공간 한가운데 배치된 무대 위, 광택이 있는 파란 천에 앉아 있는 (혹은 때로 기대기도 하고, 눕기도 하는) 이 3인의 금발의 여성 퍼포머들. 하나의 카메라 앵글이 이들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서서히 회전하며, 여인들의 반복적 목소리와 함께 영상의 순환적 구조를 강조시킨다. 반복을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 중 하나”로 간주하고, 의례儀禮, ritual에서 행해지는 반복성을 탐구해 온 키아르탄슨은 6시간 동안 행해지는 퍼포먼스에서 반복적 요소들을 통해 서사적 구조를 해체하고, 시공간이 응축된 사운드 스케이프를 통한 감각적 경험을 선사한다. 작가가 자신의 작업에 대해 “나의 작업에 스토리는 없다. 언제나 감정에 대한 것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뉴욕을 기반으로 활동 중인 미국 작가 재닌 올레슨은

2014년 뉴욕 뉴뮤지엄New Museum의 R&D 시즌 프로그램을 통해 4달 동안 레지던시에 참여하며 ‘목소리’란 주제를 집중적으로 탐구했다. 올레슨은 ‘목소리’가 지닌 다양성에 주목한 다방면의 연구를 기반으로, 실험적인 오페라 퍼포먼스, 연구 세미나, 사진, 오브제, 영상 등을 선보였다. 이 일련의 활동들이 상호 연결되어 전체 작업을 구성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중 프로젝트를 대표할 만한 상징적 작품 2점이 이번 전시에 출품되었다. 3장의 이미지가 아코디언처럼 연결된 흑백사진작품 〈Hear, Here〉(2014)은 동일한 제목으로 뉴뮤지엄에서 열린 결과 전시 《Hear, Here》의 다양한 전시작품과 오브제들을 연결 지어 볼 수 있는 일종의 아이디어 맵핑과도 같다. 3개의 이미지는 각각 여러 명의 손들이 한 여성의 목을 만지고 있는 장면, 성대를 촬영한 사진, 한 사람이 동굴의 입구를 향하여 나오고 있는 모습을 담고 있는데, 이는 ‘목소리’를 둘러싼 통념 (예를 들면, 목소리와 연결된 신체 기관으로 시각적으로 드러나 있는 목과 입을 떠올리는 것과 같은), 그리고 목소리가 존재론적으로 내적인 동시에 외적인 것임을 함축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또 다른 전시작인 〈Hear, Here〉(2014)은 뉴뮤지엄에서 진행되었던 1시간짜리 퍼포먼스를 기록한 영상 작품에는 주술적이기도 하고, 역설적이기도 한 오브제들 (예를 들어, 산 모양이면서 또 동굴 형태를 가진 조형물, 사람의 눈 모양을 하고 있는 조명기구, 귀 모양을 한 호른 등) 이 등장한다. 일상적 맥락에서 벗어난 이 물건들은 양립할 수 없는 아이디어들을 모아 놓고 말이 되지 않는 말들을 각자의 목소리로 뱉어내는 퍼포머들과 함께 역설적 상황을 만들어낸다. 오페라의 형식적 측면을 빌려와 2개의 막으로 구성된 퍼포먼스의 구조 역시 ‘역설’의 개념을 다루기 위해 작가가 만들어 놓은 하나의 장치이다. 이렇듯 올레슨의 퍼포먼스를 통해 드러나는 역설적 관

계와 상황들은 인간의 목소리에 관여하는 다양하고 복잡한 요소들, 그리고 목소리의 다면적이고 변이적인 특성을 감지하게 한다.

학제간 교류에 관심을 가지고 문학, 비디오, 사운드, 퍼포먼스 등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는 작품활동을 하고 있는 이세옥은 이번 전시에 두 편의 싱글 채널 비디오 신작 〈클라이언트 퍼포먼스 아티스트 Client Performance Artist〉(2017), 〈나는 독일어로 노래하지 않아 I Don't Sing in German〉(2017)를 선보인다. 이 두 영상에는 동일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녀는 작가의 스크립트와 연출에 따라 연기를 하거나 노래를 하고 있다. 이질적 맥락 속에서 거의 완벽한 수준으로 한국어를 구사하는 외국인의 목소리, 혹은 제거된 목소리, 클로즈업된 얼굴, 때때로 출현하는 텍스트들은 어떠한 낯섬을 만들어낸다. 이 두 작품은 앞서 언급한 ‘안나’라는 이름으로 묶이는 여러 사람들, 그리고 이 이름 뒤의 실재들을 프레임링 하는 새로운 연작 〈O. Performed by Anna〉의 시작점에 위치하고 있다. 이 연작의 근간이 된 것은 심리학자 프로이트 Sigmund Freud가 1895년 내과 의사였던 브로이어 Joseph Breuer와 함께 펴낸 책 『히스테리 연구』에서 “안나 오 Anna O”라는 가명으로 나오는 환자 사례이다. (안나 오는 환각과 불안장애에 시달리고 모국어인 독일어를 갑자기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영어와 프랑스어로만 의사소통하는 등의 히스테리 증상을 보였는데, 환자 본인의 문제에 대해 대화하게 하는 치료법을 통해 증세가 호전되었다고 한다.) 상호텍스트성 Intertextuality의 관점에서 보면, 이세옥의 작업에서 ‘목소리’는 주요한 기제로 등장한다. 하나의 텍스트로부터 야기된 목소리는 각기 다른 맥락으로 옮겨 다니며 위치전환 Transposition을 시도하는 것이다.

영국의 저명한 미술상인 터너 프라이즈 Turner Prize의 2004년 수상자였던 제레미 델러는 기발한 발상과 기획력으로 새로운 형식의 작업을 선보여 온 시각예술가인 동시에 기획자이자 행동가, 협업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며 다양한 실험을 지속해왔다. 특히 델러는 현대사의 중요한 사건이나 사회·정치적 이슈를 통찰력 있게 바라보고, 보통 사람들 혹은 공동체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협업 프로젝트 등을 통해 전형적인 화이트 큐브 White cube의 공간 너머로 작품활동을 확장해왔다. 이번 전시 출품작인 〈Beyond the White Walls〉는 델러의 지난 20년 간의 행보를 총망라했던 첫 회고전 《Joy in People》에서 전시를 주최했던 영국 헤이워드 갤러리 Hayward Gallery가 커미션 했던 작품으로, 이 작품 자체가 하나의 회고적 형태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거대한 벽화 너머로 보여지는 영상에는 1990년부터 2012년도까지 델러가 진행했던 작업들 중 미술관 외부 정원, 나이트클럽 등 공공장소에서 진행했던 일련의 프로젝트가 순차적으로 슬라이드 쇼처럼 상영되고, 배경으로 델러가 각각의 프로젝트에 대해 직접 내레이션을 진행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여기서 작가의 목소리는 이중적 의미를 지닌다.

설치, 퍼포먼스, 사운드 등 다양한 유희적인 실험을 통해서 사회적 이슈에 접근해 온 작가 김가람은 2014년 5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사운드 프로젝트 SOUND PROJECT를 통해 인터넷상의 ‘댓글’을 사회적 목소리로 간주한다. “4ROSE”라는 가상의 걸그룹명을 통해 작가는 매달 이슈가 되는 사회적 사건을 선택하고, 그와 관련된 다수의 댓글을 수집해서 편집한 가사를 가지고 1분가량의 디지털 싱글 음원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작업을 진행한다. 실제로 그 음원들은 작가의 웹사이트뿐

만 아니라, 아이튠즈iTunes나 멜론Melon과 같은 음원 사이트를 통해서 다운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음원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들은 작가가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해주는 TTS(Text to Speech, 음성합성 시스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만들어 낸 합성음이기엔 억양 등이 어딘가 모르게 어색하고 낯설지만, 이 이질적인 목소리는 오히려 작업의 원천이 된 ‘댓글’이 지니고 있는 익명성을 교묘하게 드러내는 장치가 되어 준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김기람의 사운드 프로젝트가 형식과 내용 간의 이중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각 음원 속의 목소리는 그 누구의 목소리도 아닌 동시에, 다수(대중)의 목소리이기도 하다. 또한, 음원 작업과 더불어 이번 전시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아카이브 월The Archive Wall (2017)은 그 동안의 음원작업을 총망라한 것으로, 관객들이 각각의 음원을 텍스트 형태로 수집해 갈 수 있게 함으로써 작업이 본질적으로 내제하고 있는 목소리의 기록적 측면을 드러낸다.

2006년부터 아티스트 콜렉티브로 작품 활동을 해온 슬라브스와 타타스는 출판물, 강연, 퍼포먼스, 설치 등을 통해 문화를 아우르는 복합성과 예상치 못한 유사성을 연구해왔다. 특히, 유라시아 지역의 문화, 정치, 언어적 연구를 표방하는 작업을 선보이며, 언어, 의식, 정체성과 같은 요소들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에 의문을 던진다. 전시된 두 작품 중 하나인 〈Larry nixed, Trachea trixed〉(2015)에는 우리에게 익숙지 않은 언어의 알파벳(키릴 문자)의 구성 문자들과 함께 그 발음을 하고 있는 듯한 입의 모양들이 형상화 되어 있다. 은색 거울지에 실크 스크린으로 찍어낸 강렬한 색과 형태의 입모양과 문자들은 마치 부유하는 목소리들이 박제된 것과 같은 인상을 주는 반면, 바탕이 된 거울지는 빛과 주변환

경, 관람자의 움직임에 반응하며 가변적이고 감각적으로 다가온다. 이번 전시를 위해 관객들이 가져갈 수 있는 포스터 형태로 제작된 〈Khhhhhhh〉(2016)에서 슬라브스와 타타스는 이데올로기와 종교라는 무거운 주제를 기교적 단일 음소 “kh”에 관한 노변정담 속으로 끌어 들인다. 포스터의 앞면에는 벌어진 입의 내부와 목구멍이 그려져 있고, 뒷면은 총 8페이지를 통해 이들이 2012년 출판한 책 『Khhhhhhh』에서 발췌한 일부 텍스트를 함축적으로 실었다. 이질적 언어들의 음성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 슬라브스와 타타스의 작업은 각기 다른 언어가 가지고 있는 목소리의 다성성polyphony을 드러낸다.

《더 보이스》는 참여한 12명(팀)의 작가들이 선보이는 각각의 작품을 통해 그동안 시각예술 내에서 부수적 요소로 취급되어 온 목소리에 주목하고, 시각예술과 목소리의 관계를 고민해 보는 데에 바로 전시의 지향점이 있다. 관객들은 참여 작가들이 전시 작품을 통해 위치시키는 목소리의 자리가 서로 다름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각기 다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목소리들이 전시를 통해 서로의 목소리들과 마주하게 되고, 이내 새로운 목소리를 생산해 내는 곳, 바로 그곳이 시각예술과 조우하고 있는 ‘목소리’의 다양한 층위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플랫폼의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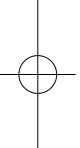


더 보이스 THE VOICE

Jieun Seo _ Curator of Coreana Museum of A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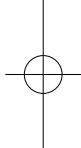
**" The voice is elusive, always changing, becoming, elapsing,
with unclear contours, as opposed to the relative permanence,
solidity, durability of the seen. "**

- Mladen Dolar



THE VOICE presents multifaceted perspectives on 'voices' that infiltrate the realm of visual art in line with the Coreana Museum of Art's thematic exploration of the 'body'. Over the past years, the museum has been making in-depth aesthetic inquiries into the topic, hosting a series of special exhibitions including "Shall We Smell" (2007), which explores around the subject of 'olfactory senses'; "Ultra Skin" (2009), which focuses on the 'skin' as the human body's most substantial sensory organ; "Artist's Body" (2010), a reinterpretation of 'artists' bodies' within the context of the twenty-first century; and "Show Me Your Hair" (2011), wherein the morphic properties of hair is explored through socio-cultural implications. Foregrounding various cultural semantics and their mechanisms, the museum's approach to the the 'body' further expanded through recent exhibitions that focus on bodily 'performativity,' such as "Performing Film" (2013) and "Code Act" (2014). As this year's international exhibition that continues these efforts, THE VOICE is also an expression of the museum and the curator's commitment to continue exploring the 'body,' a subject that stands crucial not only

to contemporary art but also to socio-cultural discourse writ large.



Let us take a closer look at the exhibition theme, the 'voice.' The voice, as a type of bodily emission in sonic form, is generated when air passes through our vocal cords and escapes through our mouths after being exhaled out of lungs. Voices include the sounds we make when speaking, laughing, crying, or singing; these sounds are intricately interconnected to our daily experiences. Voices are also intriguing in that they serve as a primal flare of existential proclamation upon our birth. In cognitive science, the voice is a critical agent that helps us recognize the existence of others. Prior to visually sensing others, we perceive external beings by listening to their voices. A closer look into the dynamics of voices and the body, as Jacques Lacan notes, shows that while generated through the body, voices are not part of the body. Rather, our voices merely share parts of our bodies. Starting with the intersection between the voice and the body, THE VOICE tracks how the voice intervenes in the visually driven field of art and manifests its

existence despite invisibility, and how visual artists explore the topic through their works. The exhibition is designed to be a historical and aesthetic rediscovery of the 'voice' as a long-neglected yet significant subject and a critical device in visual art.

The human voice is a creative catalyst. Voices, and 'the artist's own voice' in particular, often served as instruments of artistic expression in visual art, just as they have done so in other areas such as music throughout history. Sound poetics, often performed by Dadaists in their total artwork (Gesamtkunstwerk) ventures in the early 20th century, deconstruct the relationship between language and voice by focusing solely on the sound itself through the artists' own voices. The artist's voice was brought to center stage by Fluxus and their performative media hybridization ventures across events, performance, and happenings in particular, the aim of which was to critique the formalist modernism of the 1960s and seek change by fusing art with daily life in pursuit of the 'harmony between life and art.' In its evanescence and ephemerality, the voice is intimately related to performance, for it is a live experience in the presence of the here and now as a vanishing medium.

The featured artists in THE VOICE, including nine international artists from **Judith Barry** to **John Cage**, **Theresa Hak Kyung Cha**, **Jeremy Deller**, **Mikhail Karikis**, **Ragnar Kjartansson**, **Bruce Nauman**, **Jeanine Oleson**, and **Slavs and Tatars**, along with the three Korean artists **Ga Ram Kim**, **On Kim**, and **Sei Rhee**, approach the 'voice' through media such as video, installation, photographs, print, and sound. The voices they explore vary in form and type. At times by foregrounding the artist's own voice, and at others through single or multiple

agents (performer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voice and language, or even the dual play between the voice and the visible, the artists reveal their own unique perspectives.

Bruce Nauman has been staging and recording performances using his own body as an expressive tool since the 1960s. The featured piece in the exhibition, *Lip Sync* (1969), is an hour-long experimental video wherein a closed-up image of a man (Nauman himself) appears upside down on a black and white screen, repeatedly whispering the phrase "lip sync" in an audibly charged voice. The body parts, the vertically reversed image of the mouth, chin, and neck, fill the screen, obscuring all signs of the background or the character while emphasizing the continuity of physical action as anonymous bodily organs. With the passage of time, viewers realize that the actual sound and the movements of the mouth are out of sync. The disjuncture between what one sees and hears generates subtle tension, widening the temporal and semantic gaps between the mouth's movements and the actual sound.

An eight-minute single channel video by **Theresa Hak Kyung Cha**, who emigrated to the U.S. with her family and built her reputation as an artist in San Francisco, *Mouth to Mouth* (1975) also presents a close-up shot of a woman's mouth. While this experimental video may be reminiscent of Nauman's piece in its exterior visuals, the two works vastly differ in their approach to the 'voice' as a subject. In Cha's video, the introductory shot presents a mixed assortment of eight out of ten vowels in the Korean alphabet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in flowing sequence. The screen soon darkens and turns into snow, black and white noise jumbled up like on an

a liminal agent that straddles remembering and recording through the reading performance, transforming existed voice into present voice in its spontaneity.

While Kim transforms documented text into new text through voice, **Ragnar Kjartansson**, an artist from Iceland known for his appropriation of myths, cultural history, and identity, creates new contexts by reviving the parts she remembers from Allen Ginsberg's poem *Song* through the voices of three performers. The voice in Kjartansson's eponymous piece *Song* (2011) is mythical. Resplendent in their looping melodies, the three muses' mesmerizing voices sonorously fills the space, reminiscent of the mystical sirens luring doomed sailors into the sea with their beautiful and mysterious songs. This piece is a six-hour long video recording of a live performance that took place at the Hall of Sculpture in the Carnegie Museum of Art. The performance space is modeled after the Parthenon. Its white marble pillars, the balcony, and the sculptures simulate an ancient Greek temple. On the center stage, three blond women performers lounge (at times supine, and at others reclining) on a glossy blue cloth. The camera angle revolves around them, emphasizing the circular structure of the video along with the women's repetitive voices. Inquiring into ritualistic repetitions based on the notion that the act of repeating is "one of the most basic aspects of being human," Kjartansson deconstructs the narrative structure through repetitive elements in the six-hour long performance, offering sensory experience through a soundscape comprising condensed time and space. In her own words: "Always about a feeling, but there's no story."

Jeanine Oleson, a New York-based interdisciplinary artist, participated in a four-month long residency through the New Museum's R&D season program in 2014, focusing on the theme of the 'voice.' Oleson presented an experimental opera performance, research seminars, photographs, objects, and videos based on multifaceted research with emphasis on the diversity inherent within the 'voice.' All these productions come together to form a constellation, among which the most symbolic two pieces are introduced at the exhibition. *Hear, Here* (2014), a black and white photograph comprising three images that are conjoined like an accordion, is a kind of an idea mapping project that connects the myriad pieces and objects that constitute her closing exhibition "Hear, Here" at the New Museum. The three images respectively feature a number of hands touching a woman's neck; a shot of someone's vocal cords; and a person coming out of a cave. These images suggest that the voice itself and its conventional understandings (such as how we visually associate voices with relevant physical organs such as the neck or the mouth) are existentially internal as well as external. The other piece *Hear, Here* (2014), which is a recording of the hour-long performance that took place at the museum, shows various objects that straddle the magical and paradoxical (objects that look like mountains but also caves, lighting devices in the form of a human eye, or an ear-shaped horn, for instance). Removed from the context of daily life, these objects underscore the performers as they collect compile ideas and spill out nonsensical words in their own voice to create a paradoxical situation. The structure of the performance, comprising two acts that are modeled after an opera, is also a device the artist employs to illuminate the concept of the 'paradox.' As such,

the paradoxical relationships and situations Oleson's performance reveals pushes the viewers to detect the varied and complex factors concerning the human voice, and the multifaceted and morphic characteristic of the voice.

Sei Rhee, who harbors interest in interdisciplinary endeavors in her work across genres and media such as literature, video, sound, and performance, introduces two new single channel video pieces in the exhibition: *Client Performance Artist* (2017), and *I Don't Sing in German* (2017). The two videos feature the same character – a woman who performs or sings in accordance with the artist's script or directives. The voice of a foreigner speaking near-perfect Korean out of context, an eliminated voice, a close-up of a face, and the occasionally interspersed texts generate a sense of unfamiliarity. These two pieces mark the beginning of her new series "O. Performed by Anna", which frames the varied characters who are all subsumed under the name 'Anna' and the actual entities behind their façades. The main source of inspiration for the series was the case of a female patient labeled "Anna O" in psychoanalyst Sigmund Freud's book *Studies on Hysteria*, which he co-wrote with physician Joseph Breuer in 1895 (Anna O showed symptoms of hysteria, such as suffering from delusions and anxiety, suddenly losing the ability to speak her mother tongue German, or confining her communications to English and French, but she eventually showed improvement after undergoing treatments that induce conversations on her own problems).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textuality, the 'voice' serves as a crucial mechanism in Rhee's works. The voice, originating from a single text, jump across different contexts and attempt transposition.

London-based artist **Jeremy Deller**, who won the recipient of the prestigious Turner Prize in 2004, has been continuing various experiments and demonstrating his talent as a curator, activist, collaborator, and visual artist, pioneering new forms with bold ideas and initiative. In particular, Deller has been expanding his artistic reach beyond the conventional white cube through collaborative projects that induce participation from the general populace or communities, presenting insightful views on key incidents or socio-political issues in our contemporary society. The piece he is presenting at the exhibition, *Beyond the White Walls*, was commissioned by the Hayward Gallery (UK) where he held his first retrospective "Joy in People," offering a comprehensive view of his oeuvre over the past two decades. This work deserves further scrutiny in that it serves as a form of retrospective in itself. The video, projected inside a giant mural, shows a slideshow of his varied projects across the years from 1990 to 2012, featuring public sites such as an art gallery's garden or a nightclub, with Deller's voice narrating the stories behind each project in the background. Here, the artist's voice serves a dual purpose.

Ga Ram Kim, who has been approaching social issues through various playful experimentations such as installation, performance, and sound, considers online 'comments' as a social voice in her *SOUND PROJECT* – a project she has been working on since May 2014. Using the name of a virtual girl group called "4ROSE," the artist chooses the social issue of the month, collects and edits relevant comments, and produces a minute-long digital sound source in the format of a single album. The single is available for download on her website, as well as other music service

platforms such as iTunes or Melon. The intonation or inflection of the voices are rather awkward, as they are computer-generated sounds the artist produced with Text to Speech (TTS) programs; however, the alterity of these voices in fact function as a device that craftily exposes the anonymity of the 'comments' that undergird the overall piece. What is of note here is that Kim's sound project shows the dual dynamic between form and content. While the voices in each of the singles belong to no particular individual, they also serve as the voice of the many (masses). *The Archive Wall* (2017), debuting through the exhibition, is a comprehensive collection of all the singles she has produced so far. By allowing the viewers to freely access and take away the sound sources in text format, Kim assigns critical significance to the archival aspect of the voice that lies inherent in her work.

Slavs and Tatars, Berlin-based artist collective formed in 2006, has been exploring cultural complexity and unforeseen similarities through publications, lectures, performance, and installations. Focusing their research on the culture, politics, and language of the Eurasian region, they question people's notion of concepts such as language, consciousness, and identity. *Larry nixed, Trachea trixed* (2015), one of the two pieces they are exhibiting, juxtaposes unfamiliar characters from the Cyrillic alphabet to shots of mouths that appear to be pronouncing the characters. Silkscreened on silver mirror paper, the mouths and letters create the illusion of floating voices being frozen in taxidermied form in their vivid color and shape, while the mirror paper background generate morphic and sensory impressions, fluidly responding to the lighting, the surroundings, and the viewers' movements. In *Khhhhhhh* (2016), produced

in poster format so that the viewers may take copies home, *Slavs and Tatars* draws the weighty subject of ideology and religion into a fireside chat about the artful single phoneme "kh." The front side of the poster features an interior view of a human throat along with a look into an open mouth, and the back side comprises an eight-page long textual excerpt from *Khhhhhhh*, a book they published in 2012. *Slavs and Tatars'* work, focusing on the phonetic aspects of discrete languages, illuminates the polyphony of the voices nestled within different languages.

This exhibition aims to reflect on the interrelation between visual art and the voice through the works of twelve artists/teams, challenging the derivative status of the voice within the realm of visual art. The viewers will encounter the place or alterity of the voices each of the artists locate through their productions. I hope that these voices of disparate positions would come into contact with one another and in turn generate new voices through the exhibition.

Jeanine Oleson

재닌 올레슨



Hear, Here, 2014

Photo intaglio print, 19.05 x 91.44 cm
Courtesy of the artist



Jeanine Oleson





Hear, Here, 2014

Single channel video, color, sound; 1 hour
Performed at New Museum, New York
Courtesy of the artist

